

《공산당 선언-젊은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입문서》 선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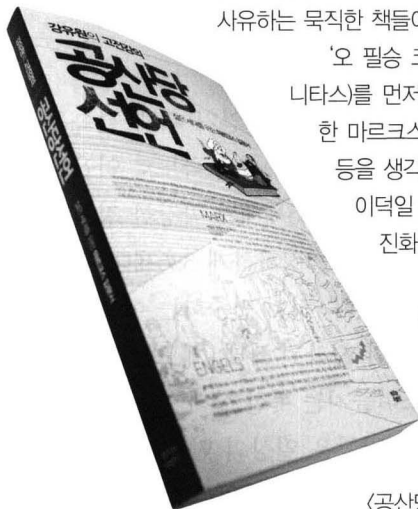
고전, 오늘에 살아 자본주의 본질 되묻다

연출된 '광풍'으로 폄하되기도 했던 월드컵 열기, 그 한가운데에서도 출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을 캐묻고, 어제를 사유하는 목직한 책들이 경박한 이 시대를 타치는 양 〈출판저널〉의 서가를 빼곡히 채워갔다.

'오 필승 코리아'의 함성을 뒤로 하며 〈출판저널〉 기자들은 책더미를 뒤진 끝에 최장집의 〈민주주의의 민주화〉(후마니타스)를 먼저 손에 쥐었고, 정동호의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책세상), 강유원의 〈공산당 선언-젊은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입문서〉(뿌리와이파리), 정진홍의 〈열림과 닫힘〉(산처럼, 이이화의 〈찬란한 700년 역사 고구려〉(언어세상) 등을 생각하며 읽을만한 책으로 꼽았다. 〈김용택의 교단일기〉(김영사), 강판권의 〈차 한자에 담은 중국의 역사〉(지호), 이덕일·신정일·김병기 공저 〈한국사의 천재들〉(생각의나무), 김남일의 〈책〉(문학동네), 남재일의 〈그러나 개인은 진화한다〉(강) 역시 들뜬 이 즈음 뇌리 깊이 침잠케하는 양서로 골랐다.

선정위원 가운데 박상익 교수가 〈공산당 선언-젊은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입문서〉 〈열림과 닫힘〉 〈그러나 개인은 진화한다〉 윤지관 원장이 〈민주주의의 민주화〉 〈공산당 선언〉 〈김용택의 교단일기〉를 각기 추천했다. 신중호 편집장은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그러나 개인은 진화한다〉 〈한국사의 천재들〉을 꼽았으며, 조우석 부장은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사의 천재들〉 〈열림과 닫힘〉을 양서로 들었다.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민주주의의 민주화〉와 〈공산당 선언〉이 같은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출판저널〉 기자들은 다시 회의를 갖고, 여러 서지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며 장고를 거듭했다. 그 결과 〈공산당 선언〉을 통해 자본주의의 실체와 오늘의 경제·사회적 함의를 캐내고, 젊은 세대에게 고전적 성찰의 기회를 마련한 점을 높이 사 강유원의 〈공산당 선언〉을 7월 '이 달의 책'으로 낙점했다.



선정위원 추천의 변

■ 윤지관(한국문학번역원장)

△〈민주주의의 민주화〉

민주주의를 '민주화' 한다는 말은 하나의 역설이지만, 저자는 이 역설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민중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핵심과 제임을 일관되게 설파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참의미를 되풀이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운동 과제를 담아내고 이것으로 현실정치를 추동해내고자 한다. 현 정권의 문제점과 그 해결법에 대한 저자의 판단에 대한 동의여부와는 별개로, 학문적 실천에서의 견결함은 높이 사고자 한다.

△〈공산당 선언-젊은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입문서〉

마르크스에 대한 해설로서는 깊이도 내용도 빈약한 이 책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마르크스의 고전적인 문헌이 실로 우리 시대의 고전일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선전해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를 세속차원에 끌어내림으로써 오히려 이 시대를 설명하는 고전의 지위에 올려놓은 그 발상에 한 표를 던진다.

△〈교단일기〉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시인 교사의 진솔하고 담담한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교단일기다. 맑고 올곧은 교사의

정신을 엿보는 한편으로, 선생님 말씀이 그렇듯이 큰 갈등 없이 너무 옳은 말들이라 좀 심심하기도 하다. 그러나 우연히 들른 주유소에 매인 개의 끈을 늘어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는 시인의 마음 앞에서는 문득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

■ 박상익(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

△〈공산당 선언-젊은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입문서〉

회사원 철학박사 강유원이 자본주의 체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고전강의이다. 상황과 배경이야 물론 다르지만 강유원도 마르크스처럼 대학 밖에서 학문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연이야 각각이겠지만, 두 사람 모두 학계 밖으로 밀려나 '현실' 속으로 밀어넣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31쪽 참조)

그래서인지 그의 글에는 현장감이 약동한다. 예를 들어보자. "요즘 웬만한 회사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체크한다. 이게 회사의 모습이다(155쪽)." 이런 이야기는 대학에 재직하는 창백한 철학교수의 글에서는 나오기 힘들다. 노동자(회사원)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지닌 저자의 글이기에, 그가 들려주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골적 현금계산' (사람이 침묵하고 돈이 발언하는) 관행에 대한 서술에는 마치 피가 도는 듯하다.

그렇다고 저자가 마르크스를 이상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할 것까지는 없다. 저자 자신이 직접 독자들을 타이른다. 무슨 ‘뻐’ 처럼 마르크스의 견해와 주장을 몇 줄 읽었다고 그 사람 책이라면서 믿는다는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다는 것이다(131쪽). 무릇 교이불권(教而不倦)은 모든 선생 된 자의 미덕이 아니던가. 젊은이들에게 읽힐 책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라도 반복할 필요가 있다.

강유원은 ‘독립인문학자’의 독특한 길을 걷는 우리 사회의 귀중한 역할 모델(role model)이다. 한 학기 강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반듯한 인문학 대중서를 제격제격 펴내는 그의 뛰어난 저술역량은, 변변한 저서 한 권 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상당수 인문학 교수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하다. 패거리 놀음에 취해 학내 폴리틱에 전념하거나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교수들을 쫓아내고 강유원 같은 유능한 인문학자를 ‘초빙’ 해줄 눈 밝은 대학경영자는 언제나 나타날는지….

△《열림과 닫힘》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라는 말은 백 년 전만 해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양의 ‘religion’을 번역한 말로 도입되었다. ‘religion’은 서양의 중세 초기에 새롭게 출현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 ‘religion’을 낳은 서양에서 ‘종교란 그리스도교’이고, ‘종교인이란 그리스도교 교인’이었다. 서양에서의 ‘종교’라는 개념은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그 결과 종교란 오직 그리스도교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서양의 종교개념은 종교란 오직 그리스도교 밖에 없다는 주장의 확산을 낳았고, 우리 역시 그 확산의 수혜자로 종교라는 개념을 수용했다. 그 결과 종교는 닫힌 것이 되고 말았다.

원로 종교학자인 정진홍 교수가 독특한 사유로 종교문화를 풀어내고 있다. 그는 종교라는 개념이 곧 종교는 아니라고 말한다. 개념화된 사물은 이미 ‘경험적 실재’가 아니며, 단지 ‘개념적 실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약한 것은 이런 곡절을 거쳐 생성된 ‘개념’이 스스로 ‘경험’을 재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어가 현실을 규정하게 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말이다.

저자는 종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종교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면, 종교라는 현상이 존재하게 된 것은 경험주체의 ‘경험’이 있어 가능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주체들, 즉 다양한 종교인들의 자기주장을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의 막힌 장벽을 활짝 열고 평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제시한 ‘인문학적 상상’을 통해 종교문화에 다가가기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단, 몽매주의가 당당하게 종교계의 한 축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개인은 진화한다》

“386세대는 군사독재와 싸울 힘을 얻기 위해 결속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주의 감수성은 극도로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40대가 된 386세대가 막강한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한국 사회는 정확하게 386세대의 정체성만큼만 민주화가 진행됐다. 정치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사회 민주화는 이제 막 시작된 상태, 제도는 민주화됐지만 개인의 삶으로 스며들지는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일상의 민주화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집단적 구호와 동원이 아니라 개인적 주장과 실천이다”(105쪽).

다소 길게 인용했지만 이 글이 저자가 바라본 한국 사회의 현주소라고 봐도 무방할 듯싶다. 저자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아이러브 황우석’ 회원들의 집회를 구경하면서 그들의 황우석에 대한 애정 표현이 가미가제 수준임을 느낀다. 집단 속에 파묻혀 있는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개탄하면서, 저자는 “자고로 용맹은 무지를 못 당한다”고 덧붙인다. ‘집단에 대한 불신과 개인에 대한 희망’, 그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이다.

영화 <트로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흥미롭다. <트로이>에는 그리스는 없고 미국만 있다는 것이다. <트로이>에서 그리스의 신들은 다 거세되고 두 명의 잘난 근대인, 헥토르와 아킬레스만이 등장한다. 헥토르는 이성주의, 가족주의, 국가주의의 핵심적 이데올로기를 온몸으로 구현한다. 아킬레스는 살육을 통해 권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근대의 파시스트로 규정된다. 저자는 헥토르와 아킬레스라는 국가주의 영웅들이 파리스의 연애담에 동원된 ‘액션 엑스트라’ 일지도 모르겠다고 일침을 놓는다. 국가, 민족, 역사라고 소리치는 시간에 주변 사람들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세계가 평화로울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천 편 이상의 영화를 관람했으나 내복 입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는 정사신을 한 번도 한 번도 본 적

이 없다는 저자의 너스레를 읽다보면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1950년대 할리우드 스타 클락 게이블이 영화 속에서 메리야스를 입지 않자 젊은이들이 '런닝구'를 입지 않아 미국 메리야스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실'도 재미있다. 추울 땐 내복을 입자!

■ 신중호(월간 <복새통>편집장)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철학에 과문하여 적확하게 논거를 댈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출간된 니체 관련 서적들은 대다수가 관련 전문가 혹은 철학 전공자들만을 위한 일종의 지적 퍼레이드였다.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반인들을 위해 니체의 사상을 쉽게 풀어 쓴 책도 있지만 읽고 나면 뭔가 더 혼란스러워진다. 니체의 사상이 워낙 난해하여 쉽게 쓴다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체계성 없이 나열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독자를 배려하지 못한 태도라 본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한층 진일보하였다. 특히 1장 '니체의 삶과 사상'은 일반인들이 쉽고 적확하게 니체의 핵심적 사상을 그의 삶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있게 하고 있음은 물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왜 니체의 사상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하게 만든다. 1장을 무난히 읽은 독자라면 그 다음의 내용(니체가 현대 사상의 여러 부분에 끼친 영향)도 무리 없이 읽어나갈 수 있다. 들어가는 문이 높아서 주변을 맴돌게 하는 책과는 달리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신의 관심 영역에서 깊게 헤엄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아울러 단순히 니체의 사상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시대의 현안들이 니체를 다시 요구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어 일독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개인은 진화한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대체로 '공존과 조화의 관계'라는 간단 편리한 추상적 답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논쟁과 현실은 다르다. 우리의 역사나 현실은 공존이 아닌 집단(집단 이데올로기)의 무자비한 폭력이 개인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온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음이라도 좋으니 나는 개인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저자의 말에는 '집단에 대한 불신과 개인에 대한 희망'이 담겨있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 관점이다. 그러한 관점을 사변적인 말의 기교로 끌고 가지 않고 실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 분석하고 있기에 공감의 폭이 크고 생생하다. 영화를 주요 텍스트로 삼은 이유도 바로 억눌린 개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지 영화평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집단이 날린 독화살을 맞고 쓰러진 개인들의 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촌철살인의 문장과 균형감 있는 비평적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를 읽어가는 저자의 일관된 스타일 그리고 진정한 연대는 온전한 개인에서 출발한다는 믿음이 독자에게 신뢰를 준다.

△《한국사의 천재들》

시대와 불화할 줄 모르는 천재는 가문의 영광은 될지 언정 역사의 천재는 될 수 없다는 단정을 바탕으로 13인의 한국 천재들을 선별했다는 기획 자체가 신선하다. '위인'들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두루뭉술하게 인물들을 단순 나열한 기존의 위인전들과 분명하게 차별이 된다. '시대의 상식과 맞서는 싸우는 불화의 인물'이라는 척도를 통해 기존의 역사적 위인들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만하다. 각 인물들이 왜 역사의 천재로 기억돼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서술과 주장이 있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 조우석(중앙일보 문화부 부장)


△《민주주의의 민주화》

최장집은 본래가 대중적 글쓰기와 상관없는 학자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고, 그것이 빛을 발한 것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였다. 이제 대중과 소통하는 정치학자로 보다 한걸음 나간 것이 이번 책이다. 진보 진영은 성찰이 필요한 문제적 집단인데, 적절한 탄력성을 보이는 측면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사의 천재들》

대중역사서 분야에서 기획의 승리와 기획의 한계를 함께 보여준다. '독립 역사학자' 그룹을 일정하게 망라한 점도 제도권에 작은 충격일 것이다. 그러나 선정 인물들이 뻗은 점, 그저 모아놓아 봤다는 한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열림과 닫힘》

중진 종교학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정진홍이 다시 상재한 죽음론, 웰다잉 웰엔딩 바람에 편승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지론이 유장하다. 다소 무거운 톤의 서술에서 더 벗어났으면 하는 희망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정리·(출판재널) 편집부